

'하나님은 망가진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부서지고 꼬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려는 하나님의 자격 시스템 다른 '언퀄리파이드' 출간

"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부적합하고 불충분하며, 무능력하다는 느낌과 압박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한다. 우리는 자신이 충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 어떤 면에 있어서든 말이다. 그것은 당신의 성격이나 인격적인 면일 수 있다. 어떻게든 숨기고 싶은 허물, 결함, 결점이 당신에게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욕망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다. 또 중독일 수도 있다. 만일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면 당신은 그 중상이 언젠가 다시 도져서 당신이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사는지도 모른다." (과연 내가 이 일에 자격이 있을까 중)

'언퀄리파이드, 하나님은 결점투성이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는 정체성을 알아가는 법을 다룬 책이다.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길을 제시한다.

'언퀄리파이드(unequipped)'는 '자격이 없는'이라는 뜻이다. 부정 접두사 'in'을 떼어내면 '퀄리파이드(qualified)', 즉 '자격이 있는'이 된다. 인간의 관점에서

는 약점이고 부적절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의 장점으로 만들어 인간의 삶을 가치 있고 사랑받아 마땅한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한 제명이다. 하나님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사람에게에는 축복을 내리주지 못한다. 결점투성이에 부서지고 망가진 사람을 축복해 주려는 마음은 간절하다. 이런 이들을 큰일에 쓰는 일에 최고 전문가다. 약점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그것을 고치는 것, 결점에 대한 해결책은 그것을 숨기는 것이다. 성공의 비법은 가능한 한 숨겨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격 시스템은 인간의 그것과 다르다.

저자 스티븐 퍼틱 목사(36·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엘리베이션교회 설립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존재로, 더 영광된 일을 하는 존재로 삶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끌어안아야 한다. 약점을 포함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가능한 한 무시하고 싶은 자기 자신의 일부

와 직면하는 일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또한 누가 아닌지를) 인식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목적의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약점과 결점 탓에 고민하고 방황하는 남녀에게 희망을 선사한다. 삶에서 실패를 억압하거나 근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가장 최선의 모습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약점 때문에 인간 안에서 그리고 인간을 통해 영광된 일을 한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꾸민 당신에게 축복을 내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할 필요가 없다" 등 경구는 물론 원용하기 좋은 내용과 논리도 적잖이 담았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자신 있고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당신은 가변과 갑옷을 벗어던질 수 있다. 당신은 비교하고, 술수를 부리고, 허세를 떠는 것을 그만둘 수 있다. 당신은 능력 있고 스스로에 대



해 만족스럽다고 당신 자신에게 설득하는 노력을 멈출 수 있다. 지금의 당신과 하나님이 명하신 당신 사이의 간극 속으로 뛰어어들라. 그곳이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리고 은총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다가가기 중) 김남령 옮김, 304쪽, 1만 5000원, 엘레이지 /뉴스스



한·문화국제포럼, 막걸리 아리랑 in 전주

'막걸리나 한 사람 들어키자' 말에서는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막걸리는 값이 싸고 심지어 배부르기까지 해 서로 권하기도 좋고 마음의 부담도 덜 하다. 막걸리 한 주전자와 김치 한 보시지만 있어도 주인공으로 그만인 게 이 술의 꿈살긋은 매력이 아닐는지.

한옥마을의 음식·문화콘텐츠 개발사업에 나서고 있는 한·문화국제포럼이 르윈호텔 맞은편 도란도란 캠핑장에서 19일 막걸리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전통주 막걸리와 김치를 음식문화로 발전시키는 물론 그 우수성을 세계 속 한·문화로 확대시키고자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복코스프레, 가면댄스 나나노, 시낭송 공연, 막걸리 마시고 걸쭉하게 고백하러, 막걸리 아리랑 밴드 라이브, 막걸리 삼행시 짓기, 코미 알까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김관수 한·문화국제포럼 이사장은 "막걸리와 함께 흥겨움에, 맛과 멋에, 정에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자신의 진리를 타인에게 강요말라"

시인 이석효

'하늘집' 출간

이석효 시인이 첫 시집 '하늘 집'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시인은 자신의 진리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고, 나와 나의 진리를 보듬고 그 진리를 자신의 진리로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시인은 희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북문화관 아카데미에서 시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이석효는 남원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수료했다. 2014년 아시아 서석문학으로 등단하여 현재 <김갑디 문화회>와 <전북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해은 기자



일본 가와사키에도 고창 농악이 울려 퍼진다

고창농악이수자 3인방, 오늘 일본 '가와사키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

일본 가와사키 일원 곳곳에서 펼쳐지는 '가와사키 재즈 페스티벌'에 고창농악 소고춤의 임성준 장구 이성수, 부포춤의 임승환 고창농악이수자 3인방이 무대에 선다. 18일 일본 가와사키 PLAZA SOL에서 예정된 공연에는 일본인 고창농악이수자 '가미노치'도 연희자로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한다. '가와사키 재즈 페스티벌'에 고창농악이수자들의 참여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일본에서 장구 연주자로 활동하며 장구와 함께하는 도보여행 '장구워크'로 주목받은 '최재철'과의 인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함께 하게 됐다.

이번 '가와사키 재즈 페스티벌' 무대는 일본 재즈 피아노의 대가 '사이바 마사히로', 일본 전통 타악연주자 '켄바 키요히로' 등이 함께 참여해 한국의 전통민속음악 농악 연주자와 일본의 재즈 뮤지션의 특별한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가와사키 재즈 페스티벌'에 장구 연주자로 참여하는 고창농악이수자 이성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간 이어진 '가와사키 재즈 페스티벌' 참여를 통해 한국의 전통민속음악 '농악'을 소개하고, 일본전통음악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체험 프로그램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합죽마을과 공동으로 국악 뮤지컬 공연 '용을 쫓는 사냥꾼'을 비롯해 전통놀이 체험, 한문화전시관 관람 등 1석 3조의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6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가족 연희 뮤지컬 '용을 쫓는 사냥꾼'은 평일인 18일에는 오후 1시30분과 오후 7시30분 두 차례, 주말인 19일에는 오후 1시30분, 오후 5시,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오후 5시에 각각 공연된다.

작품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이 관람 가능한 국악공연으로 용을 잡아 인생역전을 버리는 이들이 용을 찾아야 하는 모험기를 다룬다. 이는 국악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걸맞게 모든 춤사위와 연주는 전통적인 연희에서 가져왔다.

특히 출연자들이 용을 잡기 위해 선보이는 버나돌리기, 상모돌리기, 기점놀이, 사자탈춤 등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 관람 후에는 전통놀이 체험인 새끼 꼬기, 농기구체험, 전통놀이, 기점놀이 등 국악 뮤지컬 공연에서 봤던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 할 수 있으며 전당 홍보관 2층



한문화 전시실을 관람 할 수 있다. 전시실에는 도슨트가 상주하고 있어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공연 문의는 합죽마을 063-236-1577. /정해은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예술대 학생회도 "박근혜 퇴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총) 총학생회 등 12개 예술대 학생회는 17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시국산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예술인테트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며 "법국민적으로 분노의 공감대가 생겼지만 그들은 민심을 외면하고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스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1월 18일>

▷쥐띠
46년생: 건강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다. 설상에 주의하라.
60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운이다. 잠시 쉬어갈 이 좋겠다.
72년생: 고민이 있다면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조언을 구하라.
84년생: 자신의 생각만 믿고 움직이려는 큰 코 다치는 운이다.

▷소띠
49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61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를 욕심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라.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주수수가 따르는 운이다. 언행에 주의하라.
85년생: 자신보다 능력있는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호랑이띠
50년생: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운이다. 협동해야 가능하다.
6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운.
74년생: 노력한 것보다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다.
86년생: 밤심은 금물. 숨은 병명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생각된다.

▷토끼띠
51년생: 파한 것은 모자르지만 못한 법. 지나친것이 오히려 화.
6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꾼이 나타나 고민할 일이 생긴다.
75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이니 투기는 금물이다.
87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손윗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용띠
52년생: 힘들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니 인연을 소중히.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자꾸 막힘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상대도 나와 같다.
88년생: 먼저 일으면 나중에 일게 되는 운이니 지나친 욕심은 삼가라.

▷뱀띠
53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늦은 오후시간을 이용해볼 것.
65년생: 좋은 기운과 좋지 않은 기운이 함께 공존하는 운.
77년생: 익숙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운.
89년생: 큰 움직임은 오히려 운을 막히게 하니 때를 기다려라.

▷말띠
54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 나사지 말아야 한다.
66년생: 올리는 회기를 가리양하려. 상황만 악화된다.
78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무리한 지출은 삼가야 한다.
90년생: 작은 것은 가능하니 큰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생기는 운.

▷양띠
55년생: 문서에 걸힘이 비추니 문서를 주고받는 일에도 좋은 운이다.
67년생: 편안함에서 편태를 느끼기 쉬운 운. 작은 계획은 도움.
79년생: 주변사람들 이해 기쁜 일이 생기니 한편으로는 성가다.
91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원숭이띠
55년생: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때다.
68년생: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운. 적을 만들지 마라.
80년생: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
92년생: 소화가 게똥이 약해지는 운이므로 차가운 음식은 피하라.

▷닭띠
57년생: 타인의 덕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니 구설도 함께 따르다.
69년생: 자신에게 유리하면만은 옹니 앞으로 나아갈 때를 구분하라.
81년생: 포기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가서는 빛을 발하게 되는 운.
93년생: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운이다.

▷개띠
49년생: 타인과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61년생: 먼저 작은 것을 손해 보면 후에 큰 이득이 있는 운이다.
73년생: 모든 일은 일찍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니 때를 잘 맞춰라.
85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야 할 때.

▷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은 때가 아니니 세심한 일을 진행하는 운이다.
5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행할은 삼가는 것이 좋다.
71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독단으로 행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